

## 이달의 포커스 뉴스



<김의중 상무관 이임 인터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25P

베트남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단 착수식 참석 및 베트남 인프라 협력활동 추진

62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산업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국제교류재단(KF) .....	16
■	<기업탐방> 베트남 한인 물류협회 ..... 이범규 물류협회장	20
■	<이달의 주요인물> ..... 김의중 상무관	25
■	<산업> 베트남 전력 시장과 우리 기업 고려사항 최정호 협회장	29
■	<노무> 파견 직원의 현지 근로시 납세의무 ..... 최지웅 변호사	33
■	<법률>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 김유호 변호사	35
■	<금융> 꼼꼼히 챙겨보는 금융비용 ..... 신한은행 김도운 부장	39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	43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안장성> .....	46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	52
■	<웹툰> Post 코로나 시대를 위한 新 통상정책 .....	57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59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 2022년 1월부터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퇴직 및 사망보험 가입 의무화
- 변화시점에 맞춰 우리 진출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 필요

과거에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의료보험만 납부하면 됐으나 2018년 법 개정으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질병 및 출산보험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이미 가입이 의무화됐고, 퇴직 및 사망 보험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 되는 퇴직 및 사망 보험은 보험 납부액이 급여의 22%(회사 부담14%, 개인부담 8%)에 이르고 있어 한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한국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1. 베트남 사회보험 구성 및 내용

베트남 사회 보험은 ① 질병 및 출산 보험, ②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③ 퇴직 및 사망 보험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허가서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자와 외국 본사에서 파견돼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돼있다.

### 2. 납부 방법 및 보장 내용

회사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서 전 항의 외국인 근로자 부담부분 만큼을 공제해 지급하고, 공제액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합산해 납부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만기까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3. 시사점

내외국인 차별 없이 근로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시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사회보험 Nguyen The Manh 대표는 지난 세월 베트남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점진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다면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는 사회 보험 가입이 면제 될 수 있는만큼 향후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 베트남 식품 수출 가능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검역 요건 미비 시 수출 불가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을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된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물품이 수입 가능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 준비 및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베트남 수출 가능 품목 여부 확인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과일의 경우 현재 배, 사과, 포도, 딸기, 감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신선 야채 및 구근류의 경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검역 요건 DB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육류의 함유량이 20% 이상을 함유한 육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닭고기 및 그 부산물로 가공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 베트남 수입식품 등록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됐다면, 제품별로 식품 등록 및 식품 검역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와 등록 기관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절차가 그러하듯 식품 등록은 베트남 수입(유통)업자가 진행하며, 한국 수출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일반 식품류는 베트남 보건부 등록 대상이며, 식품 종류에 따라서 자율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인지 또는 관할 부서 승인이 필요한 제품인지 구분된다.

### 시사점

드라마 및 예능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식품의 베트남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식품 수출 시 베트남의 식품수입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따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 2021년 베트남 천연가스 산업 정보

-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 초안 승인 대기 중
- 2022년 4분기 LNG 터미널 완공 예정, LNG 공급량 확대 기대

### 주요 기업 현황

베트남 가스 및 석유 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해양 주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산업이므로 국영 기업 PetroVietNam(PVN)이 독점 관리한다. 특히 업스트림 사업의 경우 상품 공유, 공동 경영, 합작 계약 조건 하 40여 개 외국 기업들(미국 Exxon Mobil, 러시아 Gazprom 등)이 PVN 또는 PVN의 자회사 PVEP(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입했다.

### 내수 및 수출입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모두 현지에서 소비된다. 베트남에서 천연가스는 주로 발전 및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 일부는 버스나 트럭, 선박 등의 운송용으로 소비된다.

베트남 국내 천연가스 생산이 (특히 발전 분야의) 수요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해, 향후 가스 수요는 수입의 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남부 지역에 2개 LNG 터미널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22년부터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 8차 국가전력 마스터플랜 초안에 작성된 바와 같이 다른 LNG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들이 더 예정돼 있다.

한편, 현재까지 베트남의 천연가스 수출입은 전무하다. 다만, 2022년 LNG 수입 관련 시설이 구축되고 LNG 화력 발전소 가동이 준비되면 그 시점부터 LNG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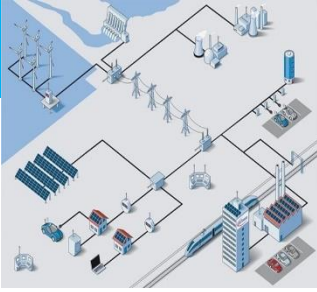
### 유망 분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 정책과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수요 확대로, 베트남의 천연가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배경으로 가스 탐사 및 채취, 파이프라인 확대, LNG 수입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가스 발전 시장의 성장 또한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한편, 가스 산업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 걸쳐 전반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일례로, 아직 베트남의 천연가스 설비 공급 안정성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전문설비, 관련 기술 및 서비스(컨설팅, 탐사, 설계,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교육, 수입 가스 공급 등)에 성장 여지가 있다. 다만 (2020년 보고서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베트남 내 가스 유통 라이선스 취득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효율화에 집중하는 베트남의 전력산업과 스마트그리드

- 7~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목표 달성
- 전력공급, 운영 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집중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에 박차

### 발전설비 현황

2020년 기준, 베트남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은 총 69GW로, 2019년 대비 13GW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전체 용량에서 석탄 및 수력 발전설비가 각각 21GW, 가스와 석유가 약 9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7GW를 차지하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신규 발전설비 용량 증가 속도, 그리고 전체 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베트남 정부가 전력사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베트남 전력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기자재 및 부품들에 대한 수입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케이블 및 전압기 관련 기자재 수입규모는 2016년 대비 각각 20%, 23% 증가했으며, 전력개폐기 또한 10%의 상승률을 보여 산업 전반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베트남의 전력 공급체계

베트남의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부 내 에너지국(General Directorate of Energy, GD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① 전력 및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고안하고 ② 지방 및 지역의 전력과 에너지 개발계획을 승인, ③ BOT(Built, Operate, Transfer) 계약으로 진행되는 전력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 베트남의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베트남 정부는 2012년부터 2022년 이후까지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2012~2016) 목표는 전력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과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였으며, 2단계(2017~2022) 목표에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파일럿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행 계획도 포함돼 있다. 분산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에 대한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마지막 3단계(2022년 이후)는 배전 네트워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대한 설치, 주거지에 대한 수요-공급 안정화 및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력 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1~3단계 진행을 위해 지방 정부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실행 중에 있다.

### 시사점

베트남의 전력산업은 공급 인프라에 대한 확대보다는 운영과 관리 측면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진출 시에도 효율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기고] 베트남 투자등록증 살펴보기

법무법인 JP 하노이사무소 전현우 변호사

### 1.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절차

베트남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 라는 용어가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법 제36조에서 반드시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등록증을 갖고 계십니다.

### 2. 투자등록증의 기재 사항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법인 설립 후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접수된 투자신청서 등을 대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융통성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투자등록증 상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내용이기때문에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투자법상 여러가지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장기 미이행과 같이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프로젝트 회수조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 3. 투자등록증의 의의

투자등록증이라 함은 투자 허가의 내용이며, 투자자의 약속이 기재된 증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투자등록증 주요 검토 내용

- 1) 프로젝트 목적 및 규모 2) 프로젝트 주소 3) 총투자자본금(Total Investment Capital) 4) 투자자 정보 5) 그 외 조항

### 5. 마치며

상기와 같이 투자등록증의 개별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안내 드린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예시 들이며, 각 투자프로젝트 별로 고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 [기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베트남 증시

김용환 피데스(베트남) 자산운용 팀장

### 1. 글로벌 경제와 주식 시장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 및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테이퍼링(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 우려로 미국 주요 지수들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듯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2020년과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는 증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 2. 베트남 경제와 증시

#### (1) 개요: 코로나가 가져온 주식 대중화 시대 및 베트남 지수 사상 최고 기록

베트남 증시는 2018년 4월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약 3년간 지수 1,000p 돌파 시도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2020년 코로나 발생 및 글로벌 팬데믹으로 3월 말 지수는 662p까지 급락하였으나 이후 저가 매수세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빠르게 회복하며 사상 최고의 지수를 기록해 가고 있다. 현재 베트남 지수는 외국인이 매월 순매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 (2) 은행 예·적금의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주식 투자

현재 베트남에서 개인들이 은행 예금 이외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부동산, 주식, 국채, 회사채 등 몇 가지로 한정돼 있으며 부동산, 국채, 회사채는 여러가지 한계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품이다. 따라서 소액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대상이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펀드 등 간접투자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직접투자가 대세이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신규 증권계좌 수 증가와 고객 예탁금 증가로 나타났다.

### 3.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베트남 증시

2020년 4월을 저점으로 베트남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글로벌 경기의 확장국면 진행과 함께 베트남 경기도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금리는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은행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리 추가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질적으로 변화하는 베트남 증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및 베트남 경기회복 및 성장, 베트남 주식투자인구의 저변 확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 도입, MSCI 신흥국 시장으로의 격상 등에 따른 외국 자금의 재유입 전망 등은 향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와 면세 활용

- 내국수입 시 관세 면제 가능 여부, 수입 요건에 따라 달라져
- 베트남 통관 시스템 상 내국수출입 코드 적용 필요

### 내국수출입제도(In-country Export & import)란?

베트남 수출입세법 규정상 간접수출이라 함은 내수기업과 EPE 또는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 간 이뤄지는 거래 또는 해외계약자와 내수기업 간 임가공 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내수기업이 해외계약자가 지정한 다른 내수기업에 물품을 전달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내국 수입물품의 임가공 또는 수출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베트남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서 상세히 정리한 바 있다.

### EPE 기업과 내국수입시도 관세 납부 필요한가?

내국수입은 내수기업 간 거래만 아니라 내수기업과 EPE 기업에도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비관세지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FTA 특혜세율 및 MFN 우대세율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본 관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목록에 있는 내국수입품은 시행령 125/2017/ND-CP 및 시행령 57/2020/ND-CP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적용해야 한다.

### 내국 수입 시 활용 가능한 원산지증명서는?

내국 수입 시 수입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FTA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EPE 기업으로부터 수입 또는 해외계약자가 지정한 다른 내수기업과 내국 수입 거래 모두 실제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이지만 베트남이 체결한 어떤 FTA를 활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관세총국은 2019년 4월 1909/TCHQ-TXNK를 발행해 내국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한 바 있다.

### 시사점

많은 진출기업이 베트남 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또는 수출 후 면제 및 환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면세 받은 수입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출을 이행했음을 매년 관할 세관에 정산보고(Liquidation)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들이 면세 적용 후 이 정산 보고서상의 오류로 관세조사 시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은 자사 거래 형태에 따른 관세 제도를 선택하고 최대한 법적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하다.





## 베트남 전자지갑 시장 동향



- 베트남 중앙은행(SBV), 2020년 전자지갑 결제 1,300만 건, 거래액 5940만 달러
- 주요 전자지갑 앱 다운로드 횟수 증가율 Viettel Pay 61%, MoMo 50%, Zalo Pay 40%

### 베트남의 전자지갑 업체

베트남에는 MoMo, Samsung Pay, VTC Pay, Bankplus, Payoo, ZaloPay, 1Pay, Bao Kim, Vimo, Mobivi, eDong, FPT Wallet, eMonkey, Pay365, TopPay, Ngan Luong, AirPay 등 다양한 전자지갑 업체가 있다. 그 중 사용자 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업체는 MoMo, Payoo, Moca, Viettel Pay, Zalo Pay 등이다.



MoMo의 모회사는 M-Service로서, M-Service는 2014년 베트남에서 전자지갑 서비스를 시작한 1세대 업체이다. MoMo는 2020년 말 기준 25개의 제휴 은행과 더불어 약 2300만 명의 최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MoMo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전년 대비 2.5배 성장한 140억 달러의 거래규모를 기록했다. MoMo는 2년 안에 가입자가 5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Payoo의 모기업인 VietUnion Online Services Corporation(VietUnion)은 2008년 1월 14일, 일본 IT 기업인 NTT Data와 베트남 국영 기업인 사이공건설공사(Saigon Construction Corporation, SCC)가 합작투자해 설립됐다. Payoo는 2020년 기준 40개 이상의 은행, 1만 2,000개의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1천 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비대면 결제를 지원한다. Payoo는 또한 베트남 전역 1만50,00개의 가맹점에 판매시점 정보 관리기기(POS)를 공급하는 베트남 대표 POS기 제공업체이기도 하다.



Moca는 2013년 설립된 전자지갑 업체이다. Moca는 Grab의 제휴 전자지갑 업체가 된 이후로 베트남의 주요 전자지갑 업체로 부상했으며, 제휴 이전과 비교해 Grab과 Moca의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시너지 결과를 이루었다.



Zalo는 베트남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메신저 앱이다. 최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Zalo Pay 전자지갑 앱을 론칭했으나, Zalo Pay 이용자 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ZaloPay의 모회사인 비나게임(VNG)은 메신저앱인 Zalo, 온라인 미디어 Zing News, 전자지갑인 Zalo Pay, 클라우드 서비스인 VNG Cloud 등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며, Tiki의 지분 22%, 물류 스타트업 회사인 Ecotruck의 지분 20%, 기프트콘 업체인 Got It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Viettel Pay의 모회사는 베트남 최대 통신사이자 국방부 소유의 국영기업인 Viettel이다.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더불어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출시한 덕분에 Viettel Pay의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27.7% 성장했다.

### 시사점

- 베트남 정부, 전자결제 서비스 지원 예상
- 베트남 전자지갑 사용자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고려해야





### ▶ SNS상 원산지 불분명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매에 주의 당부

현재 베트남 SNS상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매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페이스북에는 하루 최소 2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음. 신속진단키트는 원산지에 따라 저렴한 중국·베트남산에서부터 한국·독일·미국산까지 4.35~34.8 달러 사이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92% 이상의 정확도와 1개 키트로 15분 내 2명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베트남 보건부는 비인가 제품의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을 더 확산시킬 수 있기에 구매 및 사용에 주의를 당부함.

[VN Express, 7. 26]

### ▶ 베트남, 1~7월 15일까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59억 달러 기록

베트남은 매년 국내 차량 생산·조립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약 40-60억 달러 가량 수입하고 있음. 하지만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7.15일 기준 베트남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부품 수출액은 37억 달러임. 또한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및 독일 등이 있었음. 수출 대부분은 글로벌기업과 합작투자 및 100% 외국인 투자기업 간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기장치, 타이어, 가죽, 도료 등이 있음.

[VOV, 7. 25]

### ▶ 경제정책연구소(VEPR), 베트남 경제 전망 3가지 시나리오 발표

경제정책연구소(VEPR)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경제 회복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함. 시나리오1은 올 3분기 말까지 전염병이 통제되며 2022년 2분기에 집단 면역이 달성, 거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은 4.5~5.1%로 예상됨. 시나리오2는 8월까지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가속하는 것으로, 2022년 1분기에 집단 면역이 달성, 거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며 연간 경제 성장률은 5.4~6.1%로 예상됨. 시나리오3은 4분기까지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백신 접종이 지연되며, 개인과 기업 지원 정책, 구조 조정 및 디지털 전환은 촉진되지만, 서비스, 무역 및 FDI 유치는 천천히 회복된 상황으로 경제 성장률은 3.5~4.0%로 예상됨.

[Vietnamnet, 7. 23]



▶ **7월 24일 오전 6시 부터 하노이시 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6호 적용**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6시 부터 15일간 하노이시 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6호를 적용함. 시민들은 생필품 구입, 병원 및 약국 방문 외에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병원, 학교, 직장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 차량 및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와 택시의 승객 수송을 위한 운행이 중단됨.

[Vietnamnews, 7. 24]

▶ **7월 23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2만 8,500회 분 도착**

VNVC와 베트남 보건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백신 중 5번째 수입량인 122만 8,500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월 23일 오전 떠선녓 공항에 도착함. VNVC와 보건부가 추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으로 현재 베트남은 총 310만 회분을 공급 받았으며, 이는 베트남이 구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량의 약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VNVC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을 맺은 백신은 총 3천만 회분으로 연중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Nhan Dan, 7. 23]

▶ **중앙정부, 2021-2026년 기간 22개 부처 유지 제안**

7월 22일 오전 팜 민 쩐 총리는 2021 ~ 2026년 기간 주요 정부부처를 기존과 동일한 22개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재 베트남 정부의 주무부처는 내무부,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재무부, 산업통상부, 노동보훈사회부, 교통부, 건설부, 정보통신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자원환경부의 18개 부처와 총리실, 중앙은행, 검찰원, 민족위원회의 장관급 기관 4개를 포함 총 22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음. 베트남 중앙정부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조직구조까지 개편되면 국정 운영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기존과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 할 것으로 논의 중임.

[VN Express, 7. 22]

▶ **나이키의 베트남 생산 협력사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공급 차질 예상**

호찌민시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6호가 지속되면서 나이키의 베트남 생산 협력사인 한국의 창신비나와 대만의 푸첸도 지난주 부터 조업 중단에 돌입함.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나이키 운동화는 미국 판매 물량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나이키 운동화 베트남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나이키는 2020년 회계년도에 베트남이 생산한 나이키 신발은 예상 생산량 대비 50%에 그쳐 미국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만약 계속해서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베트남산 나이키 운동화의 미국 공급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또한 2021년 2분기, 베트남에서 생산된 나이키 운동화의 대미 수출은 2020년 2분기 대비 6.6% 상승했으나 중국에서 생산된 운동화의 대미 수출은 54.6% 상승하여 미국 나이키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남.

[VN Express, 7. 21]





▶ **호찌민 제10야전병원, 무증상 코로나 19 확진자 1,721명 퇴원 및 자가격리 조치**

호찌민 제10야전병원은 7월 20일 총 1,721명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퇴원 및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힘. 호찌민 제10야전병원은 베트남 국방대학교 기숙사에 4,500개 병상규모로 마련되었으며, 1층에 4,423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중이었음. 호찌민시는 F0를 치료하기 위한 4층 타워모델을 적용하고, 1층은 무증상자, 2층은 경증환자, 3층은 기저질환자, 4층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원 환자는 1층에 입원중인 무증상 혹은 경증환자로 보고됨. 7월 13일, F0와 F1을 자가격리 및 치료하는 보건부의 신규지침에 따라 호찌민 제10야전병원은 입원 8일차의 모든 환자들에게 RT-PCR 검사를 실시하고, RT-PCR 검사 결과 음성 또는 바이러스 배출 농도 30이하의 양성환자면 입원 후 10일차에 퇴원하여 자가격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

[VN Express, 7. 21]

▶ **베트남 건설부: 베트남 토지가격 평균 10-20% 하락**

베트남 건설부가 작성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상승세를 보였던 베트남의 토지 가격이 2분기에는 1분기 고점 대비 전국적으로 10~20% 하락했으며, 토지 거래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Batdongsan(베트남의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의 2분기 토지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매수 대상자의 토지거래에 대한 관심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박장의 토지 거래 관련 현지인의 관심도는 기존 대비 49% 하락했으며, 박닌과 하남 역시 토지 거래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의 비율은 각각 46% 하락함. 빈푹(38%), 다낭(36%), 꽝남(35%) 등 주요 거래 지역의 토지 거래 관심도가 모두 하락세를 보임.

[VN Express, 7. 20]

▶ **IMF, ADB: 베트남 GDP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앞서 4위 기록할 것**

국제통화기금(IMF)과 Asian Development Bank(ADB)는 올해 베트남 GDP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ASEAN 회원국 중 상위 4번째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베트남 정부 또한 올 하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6%~6.5%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한편 2020년 기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는 GDP 순위 4위(3775억 달러), 말레이시아는 5위(3363억 달러)를 차지했고, 베트남은 6위를 기록한 바 있음.

[VOV, 7. 8]

▶ **베트남, 자동차 비대면 판매 서비스 시작**

베트남 자동차업체는 올들어 비대면 온라인 판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VinFast는 올 1월부터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모델, 색상, 디자인 및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결제하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 중임.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3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대 TC Motors도 온라인 판매를 개시함. 한편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이라 최종 구매 결정 전 제품 확인 및 검토가 필수이기에 자동차 판매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VN Express, 7. 5]



### ▶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 증가 전망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올해 베트남의 컴퓨터·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출이 전년대비 20% 증가한 약 540억 달러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함.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한편 베트남의 전체 스마트폰 수출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 기준 총 1억 9,300만대의 휴대폰을 생산한 바 있음. (박닌 삼성전자 9,460만 대, 타이응웬 삼성전자 9,840만 대)

[Digi Times Asia, 7. 5]

### ▶ 베트남 6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44.1

IHS Markit에 따르면 2021년 6월 베트남의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54.7) 대비 9p 하락한 44.1에 머무름. IHS Markit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베트남의 PMI가 하락한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선적용 컨테이너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화물 공급 지연을 지적함.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을, 50미만의 경우에는 경기의 위축을 의미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7. 5]

### ▶ 올 상반기 항공 여객 운송량 19.4% 감소, 화물 운송량 12.7% 증가

2021년 상반기 베트남 공항 이용객은 2,6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반면 항공 화물 운송량은 66만 8,000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7% 증가함. 베트남 항공협회는 올해 베트남 국내 항공사들이 1조 5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함.

[VTV, 7. 1]

### ▶ 현대자동차, 자사 전기차를 활용하여 그랩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6월 23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활용한 베트남 내 그랩 차량호출 시범 서비스의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랩과 2018년 부터 협업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의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기존의 시범 운영에서 얻은 '전기차의 높은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등의 피드백들을 반영하여 개선된 전기차 및 배터리 임대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발표함.

[VN Express, 6. 30]

### ▶ 베트남 '21년 상반기 GDP 성장률 5.64%

베트남 통계청은 2021년 상반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64%라고 발표함.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성장률 1.82%에 비해 3.82p% 증가함. 농림수산업은 전체 GDP 성장 중 8.17%를 기여 했으며, 산업 및 건설 부문은 59%, 서비스 부문은 32.78% 기여함.

[VN Express, 6. 29]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Van Phong – Nha Trang 고속도로 건설투자
- Nam Cuong 국제병원 건설투자
- Ca Na LNG Power Center – Phase 1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Van Phong – Nha Trang 고속도로 건설투자

<b>발주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PMU7 (MOT)</li> <li>○ 연락처 : +84-28-3804-0735</li> </ul>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Khanh Hoa성</li> <li>○ 규모 : 약 561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PPP (BOT)</li> <li>○ 프로젝트 단계 : Pre-F/S MOT 제출 완료, 투자자 선정 '22년 예정</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 : Co Ma Tunnel(Van Ninh) ~ 27C번 국도(Dien Khanh)</li> <li>- 규격 : 길이 83km, 4차선, 설계속도 80~120km, roadbed 17m</li> </ul> </li> </ul>

- Nam Cuong 국제병원 건설투자

<b>발주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Nam Cuong Hanoi Group</li> <li>○ 연락처 : +84-24-6325-1888</li> </ul>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Hanoi</li> <li>○ 규모 : 약 52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60%), 상용대출(40%)</li> <li>○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선정 중</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및 쇼핑 콤플렉스 내 국제병원 설립</li> <li>- Land Area 3ha, 최대 15층 및 500개 병동</li> <li>- 줄기세포 분야 관련 기업과 공동 투자·설립 희망</li> </ul> </li> </ul>



(입찰정보)

□ Ca Na LNG Power Center – Phase 1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Ninh Thuan Department of Investment &amp; Planning</li> <li>○ 연락처 : +84-259-822-683</li> </ul>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Ninh Thuan성 Thuan Nam구</li> <li>○ 규모 : 약 2,500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편당(15% 이상), 상용대출</li> <li>○ 프로젝트 단계 : Pre-F/S 및 투자자 선정 진행 중</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nd Area : 총 83 ha</li> <li>- Plant : Capacity 1,500 MW</li> <li>- LNG Storage(port) : 4 tanks(180,000m<sup>3</sup>/ea) x 1.2 mil ton/year</li> <li>- COD : 2025년 예정</li> </ul> </li> </ul>



## 한국국제교류재단(KF)

KF 하노이사무소 최재진 소장

**베트남 부임을 환영합니다. 부임 소감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대한 소개부터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하노이사무소장 최재진입니다. 1999년에 베트남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있는 하노이와 지금 매일 마주하는 하노이는 너무나 다르네요. 우리 기업들에게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KF)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외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KF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올해가 창립 30주년입니다. KF가 왜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나면 KF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보통 분단국가, 한류, 한국기업, 민주화, 경제발전 등을 많이 언급하지만, 의외로 88서울올림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88올림픽은 우리나라의 국제교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는 커진 국력을 외부로 표출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와 편견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나 경제적 원조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고, 상호 지속적인 교류와 이해를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국제교류기관의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KF가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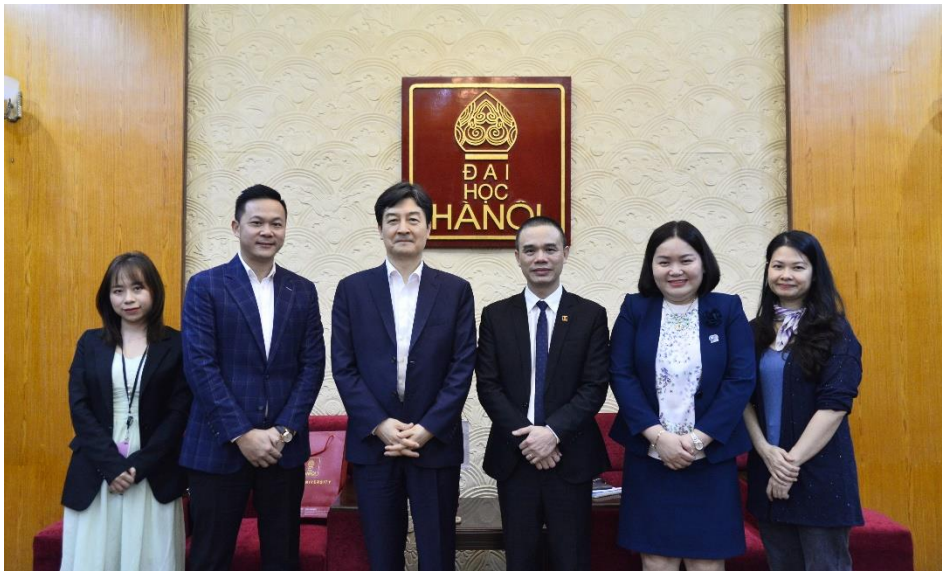


## 그러면 KF는 국제적으로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십니까?

KF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입니다. KF 설립초기 우리나라를 외국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사업 아이템관련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학 등이 교육된다면 그 나라 학생들이 한국을 보다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학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지탱할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이자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은 KF의 이력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F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외 17개국 96개 대학에 145석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숫자 의미는 해외에서 145명의 교수들이 그들이 속한 나라, 대학에서 정규 수업강좌로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한국 정치경제 등에 가르치고 있고, 그 외국학생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KF 지원 이후에 해외 한국(어)학 개설 대학수가 1991년 32개국 152개에서 2020년 107개국 1,412개로 9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노이대 총장 면담 기념사진

두 번째, <인적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교류를 통해 지한인사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여론주도층, 차세대지도자, 청년 등 연간 80여 개국 700여명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방한 인사를 대상으로 방한 전후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설문조사해 보면, 방한 전에는 한국에 대해 '조금 안다' 이었지만, 방한 후에는 '어느 정도 안다'로 이해도가 상승합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문화교류사업>입니다, 역시 국제교류의 핵심 콘텐츠는 문화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 한국 고유의 문화예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한국의 문화예술을 일방적으로 외국에 소개하였으나, 이제는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사회공헌 사업 시행을 통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해외에서 100여건의 한국 문화 행사를 주최하거나 지원합니다.

혹시, 외국 여행 가서 박물관에 들렀는데 한국실을 본적이 있으신지요? 여기에 누가 한국실을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KF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이 세계 우수 28개 박물관내 한국실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한국 문화예술 작품을 직접 보고 싶을 경우 한국으로 올 필요가 없이 런던 시내에 있는 대영박물관의 한국실로 가면 됩니다. 이제 KF는 한국실 설치가 아닌 한국실을 관리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한국미술 큐레이터직 설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현지 한국어와 관련된 베트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이 얼마나 되나요?

KF는 한국학 진흥을 위해 베트남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판된 박낙종 전 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의 <베트남 문화의 길을 걷다> 책에 의하면, 2016년도에 베트남 전국 15개 대학에서 3,2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KF 하노이사무소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31개 4년제 대학이 한국(어)학 전공과정을 운영 중이며, 17,700여명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대학 수는 2배, 학생 수는 5배 증가했습니다.

2-3년제인 6개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총 37개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호치민시 오픈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이번 가을학기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한국(어)학의 증가 속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후에외대 총장 면담 기념사진





**최재진 KF하노이사무소장님의 임기중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 바랍니다.**

우선 베트남 대학들 내 한국(어)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요 대학들과 더욱 협력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어가 중심인 한국(어)학과의 개선과 발전, 하노이와 호치민 중심에서 중부 및 메콩으로의 사업대상 지역 확대, 한국어의 제1외국어 채택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관련 도서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단된 한-베 간 다층적 인적교류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KF는 코로나 이전에 매년 4-5개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유력인사, 차세대지도자, 청년들 등 80-9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한-베간 인적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KF 초청으로 응웬 쉰언 폭 국가주석이 2014년 당시 수석부총리 자격으로 방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적극적으로 한-베 양국 간 인적교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공공외교 강화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양국 간에 보다 심화된 이해 제고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KF 사업과 활동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국민 대다수가 KF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는 우리국민들과 항상 가까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KF의 모든 사업들은 우리국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F는 이러한 기여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KF는 우리국민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우리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굳건한 국제 인적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베트남 물류업무, 전문기업과 함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비즈니스뉴스에서는 베트남 한인물류협회(KOCA)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또 대진 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계신 이범규 대표님을 찾아보였습니다. 사무실을 들어서니 금색 웰컴보드가 저희를 또 한번 환영해주네요.



**KOCA 주 베트남 한국 물류협회**  
Korea Cargo Association  
인류와 함께 걸어온 물류, 미래와 함께 달려갑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차이나 전지역 물류로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갑니다

로고	회사명	로고	회사명
	ACS		INTRADING
	ASGU		KGL
	ATO		KONET EXPRESS
	BNX SHIPPING		KJT
	CJ LOGISTICS		KUKDONG
	DALJIN		LogisALL
	DONGJIN		MJ LOGISTICS
	DSV		NEWWAY
	EP LOGIS IT		PAC SEA & AIR
	FOR M		PANTOS
	FSK		SML
	GUCHANG		SUNGIL
	HANARO TNS		TSL NETWORKS
	HOASAN		US COM
	H&FRIENDS		V ONE
	ICEL		YALE GLS

회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베트남 한인물류협회 소개부터 해주시죠.

베트남 한인물류협회는 2009년 하노이 주재 물류 기업인들의 소모임이 발전하면서 정식 발족되었으며 KOCA(KOrea Cargo Association)라는 정식 명칭으로 베트남 내 최신 물류정보 및 활동 공유, 신규루트 개발 협력,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 멤버로는저를 비롯해 현재 하노이 한인회 양모세 수석부회장님, 코참 김재홍 수석부회장님 등이 계셨고 15명 정도의 소모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항공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김재홍 대표님께서 물류협회 창립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는 4대 집행부(고문 포함 6명)가 활동 중에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약 40여개의 한국계 및 글로벌 물류업체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설립 당시(2009년) 저는 삼성물산 상사부문 물류법인(삼성전자 관계사 물류 담당 업무를 함)에서 근무하였고, 협회 초대 총무직을 맡으면서 초기 셋팅을 담당했어요. 저희 협회는 2개월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그 외에 협회차원의 사회 공헌사업과 나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코참에서 매년 개최하는 CSR 행사에 5년째 참여하면서 어려운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분기에 한번씩 방문을 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 물류업계도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의 영향이 있을까요?

초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 주요 피해국가인 미국, 유럽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의류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봉제 업체들의 피해와 더불어 주요 고객사가 봉제업인 포워드들 또한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4차 확산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도 박장, 박닌에 있는 크고 작은 물류업체들이 고객사의 공장 생산 가동률이 떨어져 그 영향으로 대금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이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축소되면서 물동량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물류업이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 컨트롤에 중점을 두면 되기 때문이었죠. 불행중 다행으로 휴대폰 등 전자업계의 경우는 타업종 대비 물동량 손실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물류업종은 타업종에 비해 타격을 덜 받은 편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극심했을때엔 저희 회사도 매출이 50%나 감소되는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은 코로나 전 매출의 7-80% 정도로 다소 회복된 상황이에요.

### 물류협회 활동으로 회원사들에게 준 권익과 성과는 무엇인지요?

정확하고 신속한 리드타임을 중요시하는 물류업계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회원사들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공단 및 공항, 항만지역 세관과의 관계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관장과 물류협회 차원에서 정기 미팅을 통해 통관 실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회원사들과 공유를 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협회 창립 후 지난 10년동안 KOCA의 내실을 기해왔다면 향후 10년은 대외적으로 널리 협회를 알리고 베트남과 회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공익적인 부분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회내 회원사의 불만이라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율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경쟁이 될 만한 소재는 잘 언급을 안합니다. 그대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던지 회원사에 피해를 끼칠만한 악성고객의 정보는 서로 공유를 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또 반대로 우수 고객의 정보도 공유하는 편 입니다. 물류 동향이나 실무적 정보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공동대응도 하지요. 최근에는 베트남 고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회원사간 공통된 물류 이슈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진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진익스프레스는 제가 베트남 진출 5년만인 2013년도에 창업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기업물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L(선하증권) 건수 기준 한달에 1,500건 정도를 하고 있고, 항공과 해운의 비율은 60 대 40으로 항공비율이 더 높으며 수출과 수입은 50 대 5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미주 그리고 유럽 관련 업무가 많구요. 저희는 항공사와 선사를 이용한 국제운송, 국경 및 육상운송, 수출입 통관, 포장, 수책 및 인벤토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실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존의 고정 거래처가 있다보니 창업 단계에서 조금 수월한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전자금 마련에 있어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특히 물류업의 특성상 항공사나 선사에는 현금으로 선지급을 하고, 고객사로부터는 1-3개월 후에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초창기 운영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운영자금 확보가 약간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당시 거래중인 베트남 협력사에게 우리회사의 비즈니스를 먼저 소개하고 서포트 요청을 하였는데 그 분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운영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지요.



## 창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

회사생활을 할 때는 보고서 작성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고 스스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면 창업을 한 후엔 내가 하고싶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물론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겠지만요. 그런데 창업이라는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요. 저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관리입니다. 물론 영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다보니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죠. 사소한 관리가 잘못되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두었구요. 저희가 도입한 결재시스템은 제가 회사 다니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인데 특히 자금 관리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신사업을 하거나 기타 결정사안이 생기더라도 신속한 판단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저희 코트라와의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약 10여년 전 하노이무역관이 하노이 시내에 위치할 때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 당시 무역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코트라 직원분들과 오며가며 인사를 하고 지낸게 계기가 되어서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제가 해당업계 종사자로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엔 인도 시장진출을 하고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뉴델리무역관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조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많은 직원들이 조사자료 뿐 만 아니라 현지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도시장에 진출하진 못하였지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요.

## 대진익스프레스의 또 다른 활동이 있다면?

대진익스프레스는 현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와 충남경제진흥원의 물류 자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 기본적으로 물류가 이동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작게는 시장을 확대시키고자 동남아 다른지역의 시장을 알아보고 있구요. 크게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고려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고 기존의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자리바꿈 하는 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물류업계도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 플랫폼 비즈니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까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지요. 예를들어 현재에는 고객들이 직접 물류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견적을 받고 물류사는 영업을 하며 비즈니스가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와 공급자가 만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됐죠. 뭐 어떤 업종이든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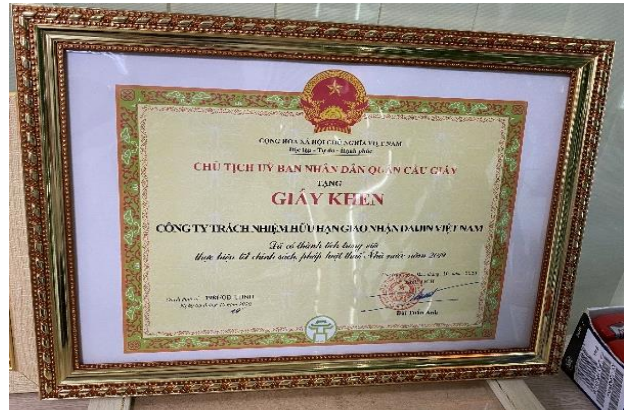


또다른 계획은 물류 컨설팅 인데요. 아시다시피 비즈니스에 있어 물류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물류비가 전체비용에서 10-20% 정도는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물류비를 절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면서 물류 컨설팅이 나오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물류 컨설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런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네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통관업무를 관세사가 하는 반면, 베트남에는 관세사 제도가 따로 없고 포워더가 통관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통관, 컨설팅, 포워딩, 무역업무 핸들링 등 모든걸 포워딩 기업이 커버하고 있는거죠. 따라서 진출기업에서는 베트남 물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물류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류협회) 코참 CSR 참여 증명서



(대진 익스프레스) 모범 납세자 표창

<끝>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김의중 상무관 이임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비즈니스뉴스에서는 8월경 이임하시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김의중 상무관님을 찾아뵙고 그간의 소회를 여쭙었습니다. 그간 베트남 진출 기업들을 이모저모 지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김 상무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곧 베트남을 떠나신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쳐 가시는데 소회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니까 참 쑥스럽네요.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올 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난 3년의 세월을 회상하면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3년의 시간이지만 1년6개월은 코로나 전의 시기였고 나머지 1년 6개월은 코로나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똑같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코로나 전의 시기는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출장자들도 지원하고 또 기업들이 잘 되는 일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많았었는데요.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하늘길이 막힌 상태에서 필수기업인들의 입국을 지원하는 업무에서부터 기업들의 힘든 상황, 잘 안 풀리는 일들을 도와주는 업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버렸지만 그럼에도 대과없이 3년이라는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대사님을 비롯해 그간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많은 일을 해 주신 코트라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어떤 업무를 하실 지는 정해 지신건가요?**

아직입니다. 아마 돌아가는 날짜가 임박해서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베트남에서 땀 흘리시는 우리 한국기업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진출기업수가 워낙 많고 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성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왕성하게 여기저기 다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북부지역만 해도 기업들이 하노이인근에 몰려있는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요. 중부지역이나 남부지역도 마찬가지구요. 기회가 되면 대사님도 모시고 정말 많은 기업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지방성 지도부를 만나는 경우도 많았구요. 일일이 모든 기업의 애로를 다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파악된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지방성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드렸었구요. 그 중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에 직접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 총리실 장관과의 대화』행사 같이 우리 기업들의 종합적인 애로를 정리해서 베트남쪽에 전달한 것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관심기업에게 드리는 조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트남의 장점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 왜 베트남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일단 기회가 많고, 또 100%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갖춰진 것이 장점입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검토하고 계신 기업들도 많으실텐데 물론 차차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우호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체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세안지역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심각하게 조업에 차질을 빚은 사태도 발생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코로나19의 영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서 발생했던 것 같구요. 이러 종류의 리스크는 집단면역 확보 등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면 베트남에 새로운 기회가 분명 많이 생길 것 이구요.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보구요.

또한 코트라, 코참 같은 여러 지원기관들의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어서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애로가 있을 때 보다 손쉽게 해결하고 정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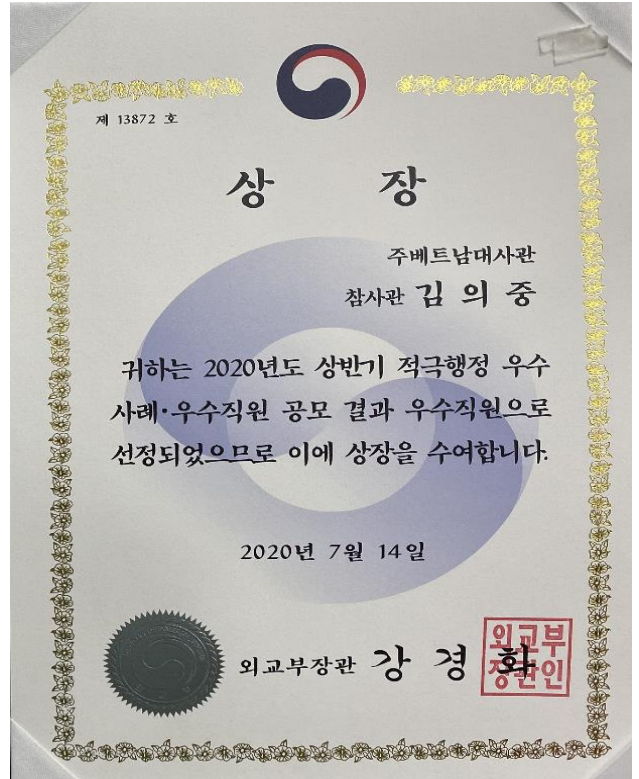
주의할 점으로는 아무래도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현상에 대해 법과 제도가 다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 담당공무원들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재량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이 바꿨다는 이유로 그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뒤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im Eui Joong  
Commercial Counsellor of Korean Embassy

### 상무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업, 행사, 업무가 있으셨다면 무엇인지요?

코트라, 코참 등과 함께 그동안 안 해봤던 사업을 추진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Meet Korea』 행사의 경우, 코로나 기간임에도 63개성시의 대표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투자확대 등 협력아젠다를 논의했던 행사였었구요. 『베트남 총리실 장관과의 대화』도 총리실에 직접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제기했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한국-베트남 투자기술협력 포럼』은 중부 광남성에서 개최하여 중부지역 협력가능성과 투자관심도를 제고했던 사업이었는데요. Trinh Dinh Dung 베트남 부총리님, 주형철 신남방특위위원장님 등도 참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사님을 모시고 북부 지역 여러 성들을 방문하여 지도자분들과 여러 논의를 했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최근 몇 년간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이 활발한데요.**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은 매우 돈독하고 활발합니다. 또한 내년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인데요.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에 있어 기념비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역시 미래를 염두해 둔 아젠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차산업혁명 대비, 부품소재산업 육성, 탄소중립실현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얼마전 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변경 하였는데요. 이러한 위상에 걸맞을 수 있도록 내년 양국 수교30주년이 다양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 최근 베트남 전력 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시 고려사항

주베트남한국에너지협회(KEAV) 최정호 협회장  
coolchoi.keav@gmail.com

### 베트남 에너지 정책 : 국가전력개발계획(PDP 7~8)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 중에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리적 예측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맞추어 현재의 산업 구조가 조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 전략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베트남 에너지 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전력개발계획인 PDP 7이 2011년에 발표되었고, 2016년 이에 대한 수정안(PDP 7 Revision)이 공표된 이후, 오랜 내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2021년 2월 PDP 8이 정부에 공식 제출되어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10년간 베트남 BOT 사업을 담당해온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종 확정 및 공표까지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을 것이나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PDP 8 초안의 정책적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재임기간 담보 상태였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논의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탄소 중립”의 화두로 국제 규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베트남 정부의 대응 수위가 PDP 8 최종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일지 주목된다.

### 베트남 전력 시장 개황

향후 베트남 전력 시장의 전개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세부 통계자료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 1. 대규모 공급력 확보 (PDP 7)

도이모이 정책(1986년) 이후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 부족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남부의 경우에는 가스전 개발 및 이를 연계한 푸미 1~4 프로젝트 등 가스화력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가스전 개발의 지연, 부존량 부족 그리고 육상관로(Downstream)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빈탄 프로젝트 등 수입 석탄 발전소 건설도 병행해 왔다. 북부의 경우에는 무연탄 광산 개발을 연계한 석탄화력발전소 확충을 통해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해 왔으나 부존량 고갈 및 채산성 악화로 2010년 전후로 응이손 프로젝트 등 수입 유연탄 발전소 건설을 민자발전사업(BOT, IPP) 형태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석유공사 등은 남부 가스전 개발에, 국내 건설사들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바 있고, 한국전력 및 포스코에너지는 석탄발전 BOT 사업자로 현재 건설 및 운영 중에 있다.

### 2. 신재생으로의 전환, 원자력 사업 유보, LNG 도입 추진 (PDP 7 Revision)

2016년 PDP 7 수정안 공표 전후로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신재생 발전 보조금(FIT)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기간 태양광 설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체 설비용량 대비 약 24%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기간 한화에너지 등 우리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Solar Farm)에 성공한 바 있고, 틈새시장에서 시작된 지붕태양광(Roof-top Solar)사업은 최근 현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한편, 이 무렵 베트남 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원자력발전의 도입 유예(사실상의 중단)를 선언해서 원전 3기를 추진해 오던 한국 측에 충격을 준 바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천연가스의 개발 지연으로 LNG 수입 Terminal을 연계한 가스복합화력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 3. 2020~2030년 베트남 전력개발 계획(PDP 8)

설비용량(GW)	2020		2030		증감	
	용량(GW)	비중	용량(GW)	비중	증가량	비중 증감
석탄	20.4	29.40%	37.3	27.10%	16.9	-2.30%
수력	20.7	29.90%	24.8	18.00%	4.1	-11.90%
천연가스	7.1	10.20%	10.6	7.70%	3.5	-2.50%
LNG	0	0.00%	18.1	13.10%	18.1	13.10%
태양광	16.6	24.00%	18.6	13.50%	2	-10.40%
풍력	0.6	0.90%	18	13.10%	17.4	12.20%
바이오매스 등	0.6	0.90%	3.2	2.30%	2.6	1.50%
ESS	0	0.00%	1.2	0.90%	1.2	0.90%
수입	1.3	1.90%	5.7	4.10%	4.4	2.30%
총설비용량	69.3	100.00%	137.7	100.00%	70.2	0.00%

위는 최근 제출된 PDP8 초안 중 필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표의 오른쪽을 보면 2020년 대비 2030년 기준 설비증가량 및 비중의 증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2030년 연료별 전력 포트폴리오는 화력분야에서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유지되고 수력 및 천연가스발전의 역할은 감소되며 LNG 발전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재생 분야는 태양광 개발 합리화, 풍력 발전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신재생으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태양광 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면서 풍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기저 부하용 발전원인 석탄 및 천연가스의 비중은 낮추어 가면서 LNG 발전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규 발전소 건설 등 발전용량 확대에 따라 500kV 고압 송전망 보강 및 신규 건설도 병행될 것이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배전 및 변압설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와 연계된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도 본격적으로 검토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기업의 베트남 전력 시장 진출을 위한 고려사항

### 1. 신재생 사업 확대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Solar Farm)은 높은 보조금 단가(FIT)를 보장 받으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베트남전력공사(EVN) 측은 태양광 발전량을 제약하는 조치(Curtailment)를 취하면서 상당수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적으로 보면 신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지 기반의 민간발전사업(IPP)의 형태로 BOT사업과 달리 지급보증, 최소 발전량 보증 등의 보호 장치가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비한 운영상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 부지 선정시 전력계통 접속에 무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산업통상부(MOIT) 및 전력공사(EVN)는 현재 남부 지역에 태양광 사업들이 난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조금(FIT)을 보류시키면서 상업성이 부족한 태양광 사업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규 태양광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면밀한 기술적 검토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LNG 도입 및 Gas-to-Power 프로젝트

베트남 정부는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안정적 기저부하용 발전원을 LNG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LNG로의 전환을 위해서 “가스터미널 + 복합발전소 건설”의 패키지 형태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남부 지방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 신정부 출범이후 중북부 지방성들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석탄화력에 비해 원가가 비싼 가스 발전을 단기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전력공사(EVN)의 재정 악화 등 베트남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대정부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올해초 PPP법 공포이후 세부 시행령이 아직 보완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업개발(투자)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0여년 전 7차 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되었던 다수의 석탄화력 사업들 중에 실제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점은 향후 LNG 프로젝트 개발시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3. 탄소중립의 시대와 베트남 전력시장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중립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에너지 업계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개도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베트남에게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재생 발전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발전단가를 수요자가 부담하거나 발전보조금(FIT) 등 정부의 재정 확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직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베트남 정부가 빠른 속도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탄소 중립관련 에너지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전환기에 맞는 틈새시장(Transitory Market)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전력공급 분야에서는 풍력(육상 및 해상) 발전에서, 수요 분야에서는 고효율 전력설비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끝>





## 공무상 파견 대표사무소 소속 직원의 현지 근로 시 납세의무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사례) 甲은 베트남 내 운영 중에 있는 대표사무소이다. 베트남 중앙부처의 승인 하에 설립 된 특정 분야 홍보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대표사무소로서 그 동안 모든 사업비 및 인건비는 한국 본사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수령 하에 운영 중에 있다. 현재 甲 대표사무소 내 근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본사에서 발령된 한국인직원 1인 및 베트남 현지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바, 한국인 직원과 베트남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직원은 공무상 관용여권을 소지 중에 있으며, 다만 한국인 직원은 베트남 현지 세무당국에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일괄 납부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현지 채용 직원은 베트남 현지 법률에 따라서 소득세 및 각종 보험료 납부 중에 있다. 甲은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소득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질의하였다. 금번 칼럼에서는 일반 대표사무소가 아닌, 공무상 목적으로 파견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산하 대표사무소 소속 직원의 베트남 내 소득세 납부에 관한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질의 1)** 현재 한국인 직원은 베트남 조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로 공무상 관용여권을 소지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이유가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인지 여부

**(답변 1)** 간혹 이와 같이 베트남에 파견된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베트남 내 소득세외납부 의무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발생한다. 관련하여 비교적 명확한 답은 외교부 예하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또는 행정직 대사관 부속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 베트남 내 과세대상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甲 사무소의 경우,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적 신분으로 인한 관용여권 발급 하에 현지 체류 및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하기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면제 되는 것은 아니나,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가 아닌 한국 내에서 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이 될 수 있다(1994년 5월 20일자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 1) 해당 외국인 직원이 베트남 내 해당 외국 정부(기관)의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 2) 외국(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급여 및 보수를 외국(한국)에서 수령하는 경우



**(질의 2)** 甲의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인 직원이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관용여권 소지 자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 요소인지 여부

**(답변 2)** 첫번째 질의 사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 해당 외국인 직원이 베트남 내 해당 외국 정부(기관)의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및 2) 외국(한국) 정부(기관)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급여 및 보수를 외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베트남 법규에서 규율되고 있다.

즉, 관용여권 소지 자체는 상기 2가지 요건 중 ‘공무수행’자의 신분을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관용여권 자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질의 3)** 현재 甲은 한국 본사에서 송금해오는 甲의 현지 경비조 비용을 수령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는 일체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본사가 송금하여 매월 수령하는 현지근무수당 등은 미화 5,000불 이내로 현지 출장 시의 출장비, 사택임차료와 자녀학비 중 일부만을 보조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용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현지에서 일체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모든 소득의 원천은 한국이라는 점을 들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혹시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현지법률상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추후 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답변 3)** 위 사례에서 甲의 상황은 2가지 경우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甲의 한국 본사가 甲 소속 한국인 직원의 베트남 현지 계좌로 직접 지급 수령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가 아닌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로 귀결될 수 있다.
- 2) 그러나, 甲의 한국 본사가 甲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은행 계좌로 입금 후 당해 베트남 내 계좌에서 甲 소속 한국 직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별 관할 베트남 세무국에 방문하여 해당 한국인 직원이 수령한 보수(혜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2013년 8월 15일자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111/2013/TT-BTC 제2조 2항, 제7조, 제18조).

베트남 현지 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어, 미납 및 지연의 경우 관련 페널티가 부가되며, 페널티는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는 (최소 40만동~ 최대 500만동) 그리고 지연에 대한 페널티는 지연기간에 따라서 (일할 최소 0.03%~ 최대 0.07%)로 구분되어 합산 부과될 수 있는 바 (2016년 8월 12일자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130/2016/TT-BTC 제3조 2항), 베트남 내 위 사례에서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표사무소(공무상 관용여권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면밀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반 외국투자법인의 청산의 경우보다 대표사무소의 청산 시 소속 직원들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여 보다 면밀하게 관할 당국에서 조사 개연성이 높은 바, 관련 법규 준수가 청산 또는 운영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권한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지난 칼럼에서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 그리고 제품 품질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침해 구분	행정기관	권한	업무 및 세부 절차	소요기간
저작권 (Copy rights)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산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산하 시장관리국(Market Surveillance Agency, MSA 또는 Market Management Bureau, MMB)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사안의 성격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li> <li>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림.</li> <li>행정처분은 강제적 침해 행위의 종료와 함께 경고 또는 벌금으로 이루어짐. 침해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안, 지역 및 기관에 따라 최소 2주 이상 소요</li> </ul>
	또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OPS) 산하 경제경찰(Economic police) 또는 각급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PC)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속 요청은 저작권사무소(COV)의 판정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행정기관에 함.</li> <li>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신청자의 단속 요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음.</li> <li>일반적으로 단속은 행정처분 여부의 심사에 필요한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침해자 소명 등 심사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이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관리국(MSA): 2~6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조사국(Inspectorate): 4~8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경제경찰(Economic police): 2~6개월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ul>
	문화체육관광부(MOCST) 산하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ice of Vietnam, COV)	심사 및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가 구제책을 강구하기 전에 저작권사무소(COV)로부터 판정 확인을 받아야 함.</li> <li>법무법인 등의 현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증거 확보 후 제출하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정함.</li> <li>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 건이 집행기관의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확인해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월 (속성처리 가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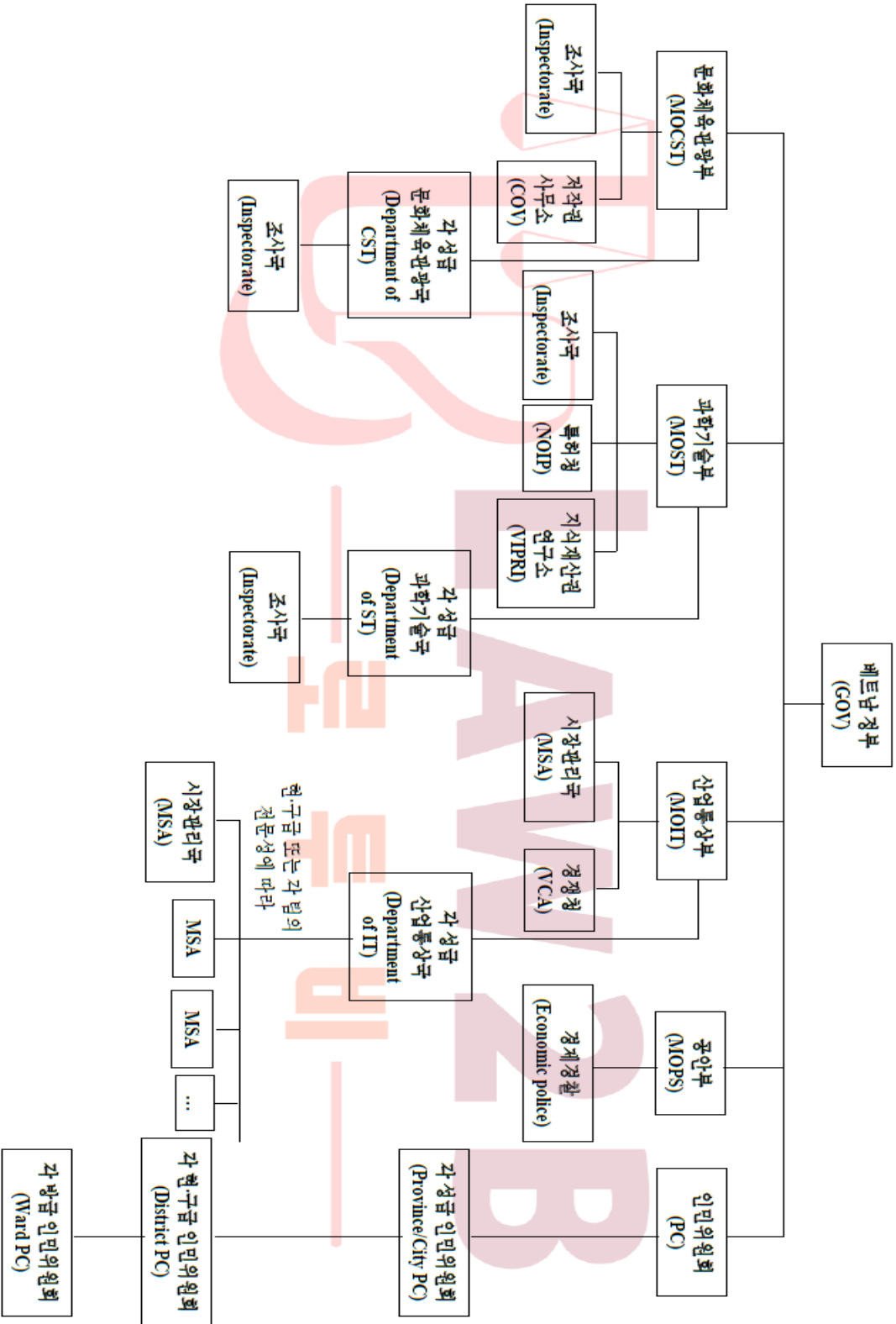
침해 구분	행정기관	권한	업무 및 세부 절차	소요기간
상표권 (Trade marks)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산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산업통상부(MOIT) 산하 시장관리국(MSA) 또는 공안부(MOPS) 산하 경제경찰(Economic police) 또는 각급 인민위원회(PC)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사안의 성격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li> <li>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림.</li> <li>행정처분은 강제적 침해 행위의 종료와 함께 경고 또는 벌금으로 이루어짐. 침해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관리국(MSA): 2~6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조사국(Inspectorate): 3~8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ul>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속 요청은 베트남 지식재산권연구소(VIPRI)의 판정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행정기관에 함.</li> <li>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신청자의 단속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음.</li> <li>일반적으로 단속은 행정처분 여부의 심사에 필요한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침해자 소명 등 심사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이 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관리국(MSA): 2~6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조사국(Inspectorate): 4~8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경제경찰(Economic police): 2~6개월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ul>
	과학기술부(MOST) 산하 베트남 지식재산권 연구소(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 또는 베트남 특허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NOIP)	심사 및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책 강구 전에 베트남 지식재산권연구소(VIPRI)의 판정을 받아야 함.</li> <li>특허청(NOIP)은 타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함.</li> <li>법무법인 등의 현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증거 확보 후 제출하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정함.</li> <li>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 건이 집행기관의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확인해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월 (속성처리 가능)</li> </ul>



침해 구분	행정기관	권한	업무 및 세부 절차	소요기간
부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산업통상부(MOIT) 산하 베트남 경쟁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VCA)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과 같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베트남 경쟁청(VCA)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짐.</li> <li>i. 경쟁법 제40조와 시행령 71/2014/ND-CP 제28.2조: 포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사용</li> <li>ii. 경쟁법 제45조: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특히 디자인 및 제조원에 대한 허위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안에 따라 다름</li> </ul>
	상표권과 저작권 기관과 동일.	행정 처분, 단속, 심사 및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의 내용 및 절차와 동일함.</li> <li>지식재산권법 제130.1조: 상품의 제조원, 용도, 품질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업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소요 기간 참조</li> </ul>
상품 라벨 표시	과학기술부(MOS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등 관련된 제품 종류의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산하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산업통상부(MOIT) 산하 시장관리국(MSA) 또는 공안부(MOPS) 산하 경제경찰(Economic police) 또는 각급 인민위원회(PC)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정보가 없는 경우, 관련 제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시장관리국(MSA) 등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li> <li>베트남 시행령 43/2017/ND-CP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예: 제품 설명, 경고문,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 유통기한 표시 형식에 대한 베트남어 설명, 성분 목록에 용량에 대한 정보 등</li> <li>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관리국(MSA): 2~6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조사국(Inspectorate): 3~8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ul>
제품 품질 문제	과학기술부(MOS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등 관련된 제품 종류의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산하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산업통상부(MOIT) 산하 시장관리국(MSA) 또는 공안부(MOPS) 산하 경제경찰(Economic police) 또는 각급 인민위원회(PC)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조품의 샘플을 수집하여 품질과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고, 검사 결과, 금지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관련된 제품 종류의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의 조사국(Inspectorate) 또는 시장관리국(MSA) 등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li> <li>행정기관은 증거 자료 검토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및 침해자의 소명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관리국(MSA): 2~6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li>조사국(Inspectorate): 3~8주 (사안 및 지역에 따라)</li> </ul>



\* 가로로 읽어주세요.







## 꼼꼼히 챙겨보는 금융 비용

신한베트남은행 외환사업부 김도운 부장

물건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건의 가격 = 직접비용(생산원가) + 간접비용(물류+금융비용) + 목표수익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생산원가는 물건 제작에 들어가는 원재료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개념이니,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원가절감”이 이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간접비용인 물류비용은, 얼마전에 수에즈운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제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외부적 변수가 상당 부분 작용하기에, 통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간접비용 중 금융비용은, 금융사에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 그리고 실제 사용통화와 결제통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환차익 또는 환차손, 결제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추가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우리는 목표로 하는 수익을 극대화 하거나 물건의 가격을 낮춰 가격협상력을 갖출 수 있기에, 각종 비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지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큰 요소이다.

그럼, 지금부터 위 3가지 비용 중 금융비용을 꼼꼼히 챙겨보는 법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가정부터 하겠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다. 수입상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가격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물건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물론 경쟁업체의 동종물건에 대한 가격이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겠다. 그럼 위에서 봤듯이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가절감은 평소에 늘 고민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할만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물류비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금융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금융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금융비용 = 수수료 + 환차익 or 환차손 + 결제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추가비용

이 중 “수수료”는 큰 틀에서 보면 은행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고, 수수료체계 또한 일정금액 or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주거래은행 이라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경우도 있을테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환차익(손)”의 경우는 금융비용이 될 수도 금융수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아마도 USD, EUR 과 같이 외국통화를 결제통화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환율은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동하므로 이를 관리하는게 쉽지 않다. 수출기업의 경우는 해외에서 결제자금이 들어오는 시점마다 환율이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수입기업의 경우는 해외로 결제를 하는 시점마다 환율이 내리기만을 기도할 수는 없을테니 말이다. 만약, 우리가 수출과 동시에 수입을 해야 하는 업체인데, 다행히 수출입계약이 모든 동일한 통화로 되어 있으며, 그 순서 또한 수출 대금 first, 수입대금 next 라면, 수출대금을 받아서 환전하지 않았다가 수입대금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머리가 안아프겠지만, 반대로 수입대금 first, 수출대금 next 이거나 그리고 수출입계약 간에 통화가 서로 다르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회사의 결제구조와 시점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해 놓는 편이 좋다. 대표적인 환율 헷지 상품으로는 선물환(forwarding)과 같은 상품들이 있다. 선물환이란 쉽게 말하면, 미래의 특정시점에 내가 사거나 팔 환율을 지금 결정해놓는 것이다. 물론 선물환 계약을 은행과 체결하기 위해선 미래의 특정시점을 알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살지 말지 또한 예측가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해외에서 수출대금(USD)이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같은 통화로 3개월 후에 수입대금(USD)을 해외로 보내야 한다. 환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싶다. 다만, 현재 베트남내에선 USD 에 대한 예금금리가 제로이다.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다. 이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바로 높은 VND 예금금리와 선물환을 이용하는 것이다. 형식은 간단하다. 먼저 수출대금(USD)를 VND통화로 바꾼다. 그리고 3개월짜리 VND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정기예금 만기에 VND에서 USD로 다시 바꾸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다. 보통 이를 스왑정기예금(swap time deposit)이라고도 부른다.

$$(예시) \text{실제예금이율}(1.5\%) = \text{VND 3개월 정기예금이율}(3\%) - \text{선물환 등에 들어가는 비용}(1.5\%)$$

3개월 후에 똑같은 금액의 USD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있을때는 0% 이율이었지만, 스왑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했을때는 1.5%(예시)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결제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추가비용”이다. 이건 수출입 계약에 앞서 물건의 가격 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 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간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제일 많이 쓰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은 송금(T/T) 방식이다. 하지만, 송금 방식은 수출상이든 수입상이든 누군가 하나는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물건은 돈처럼 금방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지든 수출지든 우리 회사의 직원이 물건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이 움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직원을 수입지나 수출지에 파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보낼지 송금을 먼저 보낼지를 수입상이든 수출상이든 한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송금방식으로 수출입대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송금수수료 등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 결정시 “결제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결제방식은 신용장(L/C) 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상을 거래하는 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수입상을 거래하는 은행은 보증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보증료를 받는 기간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순간부터 수입상이 결제하는 순간까지이다. 다시 말하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상이 결제하는 순간까지의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신용장방식으로 결제대금을 주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신용장방식을 사용하는 냐가 물건의 가격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의미이다.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sight 방식    ② (shipper's) Usance 방식    ③ (Banker's, UPAS) Usance 방식

- ① sight 방식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순간부터 수입상이 결제하는 순간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방식으로, 즉 보증료가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다. 다만, 수입상은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5영업일내에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수출상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위의 3가지 방식 중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금융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므로, 물건의 가격 또한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다.
- ② (shipper's) Usance 방식은 선적서류가 도착하고 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후에 수입상이 결제해야 하는 방식이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자금을 천천히 결제해도 되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보증료 내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보증료 부담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먼저 보내고 자금은 천천히 회수하게 되므로, 할인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 ③ (Banker's, UPAS) Usance 방식은 위의 2가지 방식을 적절히 섞어놓은 방식이다. 즉, 수입상은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대출을 일으켜 수출상에게 자금 결제를 하고 본인은 일정기간 이후에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보증료와 대출이자 등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지만, 수출상에게는 자금을 빨리 결제해 줄 수 있어, 물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수입상 입장에서 정리하면,

	sight	(shipper's) Usance	(Banker's, UPAS) Usance
<b>자금결제시기</b>	빠름	느림	느림
<b>가격산정시 고려할 비용</b>	보증료(short term)	보증료(long term)	보증료(long term) + 대출이자(long term)



이를 수출상 입장에서 정리하면,

	sight	(shipper's) Usance	(Banker's, UPAS) Usance
<b>자금회수시기</b>	빠름	느림	빠름
<b>가격산정시 고려할 비용</b>	할인비용(short term)	할인비용(long term)	할인비용(short term)

예전에 지점 거래처인 수출업체가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상과 거래를 하면서, 신용장 관련된 수수료를 가격 산정시 고려하지 않았다가, 수출을 하면서도 상당한 손실을 봤던 것을 본 적도 있으며, 기껏해서 수출 or 수입거래를 해놓고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바람에 안하느니만 못했던 거래를 본 것 또한 부지기수였다. 물건을 잘 만들고, 싸게 만들고, 잘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끝>



##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 **[배경]** 베트남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으나, 2021년 4월 말부터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동남아는 신속한 국경폐쇄, 덥고 습한 기후, 정부의 엄격한 방역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나, 2021년 4월 말 이후 인도 및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재확산에 직면
  - 베트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 부족(6월 12일 기준 접종률은 1.44%로 ASEAN 회원국 중 최하위)으로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
- ▶ **[주요 내용]** 코로나19가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자국 내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생산과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은 강력한 방역과 통제, 공동체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왔으나, 지난 5월 한 달간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4월 이전 총 누적 감염자 수(2,928명)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4,504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산
  - 지역사회 감염이 산업단지 감염으로, 그리고 산업단지 감염이 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
  - 북부 공업단지(박닌, 박장)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지난 5월 수출은 전월대비 감소했고(-2.1%), 방역·봉쇄 조치로 회복세를 보이던 상품·서비스 소매판매도 5월에 전월대비 감소(-3.1%)
- ▶ **[시사점]**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장애, FDI 유입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미·중 갈등 상황 하에서 공급망 재편 후보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베트남 당국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포함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핵심 방역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백신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 봉쇄에 불과
  - 집단면역 달성 후 경제를 정상화한 선진국이 서둘러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증가한 가계부채와 부실채권은 베트남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홈페이지내 발간물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對베트남 화장품 수출 트렌드와 시사점

전략시장연구실 김보경 수석연구원, 양지원 연구원

### 목차

1.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화장품 시장 동향
2. 코로나19 이후 對베트남 화장품 수출 트렌드 및 기업 사례
3.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역성장을 겪은 가운데 베트남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플러스 경제성장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을 포함한 베트남 미용시장은 2020년 21억 달러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등 일상으로의 복귀가 진행될 경우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은 2021년 기점으로 반등해 향후 5년 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지출 증가, 품목 다양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구매 접근성 증대 등으로 화장품이 일상 소비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장 수요는 견조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화장품 수출의 주요 트렌드로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 ▲스타트업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 판로 개척 ▲뷰티 콘텐츠 스타트업 베트남 시장 진출 등이 꼽혀 베트남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출 생태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 동력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과의 접점 확대, 매력적인 뷰티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확대 전략이 중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對베트남 화장품 수출 트렌드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KITA\) 홈페이지내 연구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 베트남 에너지 전환 ‘가속’, 360조 전력시장 ‘활짝’

문의 : 전략시장연구실 정귀일 연구위원 (02-6000-5184)

박경진 실 장 (02-6000-5103)

- 무협 보고서, 베트남 발전 설비용량 2045년까지 4배 확대… 청정에너지, 전력망 분야 진출 유망 -

베트남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력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이를 기회로 삼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박천일)은 5일 ‘베트남 전력 산업의 현재와 미래: 360조 베트남 전력 시장을 잡아라!’를 통해 베트남이 2045년까지 풍력·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와 송배전 등 전력 시장에 32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베트남 전력망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경제가 2045년까지 연평균 6% 내외로 성장할 경우 전력 소비량은 2020년 217TWh(테라와트시)에서 2045년 877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력 소비량 증가에 맞춰 발전 설비용량도 2020년 69GW(기가와트)에서 2045년 277GW로 4배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발전 설비용량 확대는 풍력, LNG,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면서 “풍력 설비용량은 작년 0.6GW에서 2045년 61GW로 증가하고, LNG는 2025년 4GW에서 2045년 59GW로, 태양광은 2020년 17GW에서 2045년 55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원 변화에 따라 이를 잘 송배전 할 수 있는 전력망의 구축도 중요하다”면서 “베트남은 2045년까지 18,742km에 이르는 500kV 송전망과 25,260km에 이르는 220kV 송전망을 구축해 지역 간 송전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전력 산업의 현재와 미래: 360조 베트남 전력 시장을 잡아라!**

한국무역협회(KITA) 홈페이지내 연구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안장성

### □ 안장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3,537km<sup>2</sup> • 인구: 1.9백만명 ('20년)</li> <li>• 도시거주 비율: 30%</li> </ul>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장성은 베트남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메콩강 상류에 있는 성임. 동쪽으로는 동탑성(Dong Thap), 동남쪽으로는 켄터시(Can Tho), 서쪽으로는 끼엔장성(Kien Giang), 서북쪽으로는 캄보디아와 인접해 있음. 캄보디아와의 인접 경계선은 거의 100km에 달하며 4개의 국경관문이 있음</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대도시까지의 거리:</li> <li>- 안장 ↔ 호치민시: 190km</li> <li>- 안장 ↔ 켄터시: 60km</li> <li>- 안장 ↔ 락자시(끼엔장성): 77km</li> <li>- 안장 ↔ 프놈펜시(캄보디아): 120km</li> </ul>
GRDP 성장률 / 1인당 GDP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대비 성장률: 5.45%</li> <li>• 성 1인당 GDP: US 2,000달러/년</li> </ul>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수출액: US 9.3억 달러 / 총 수입액: US 1.66억 달러</li> <li>•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6.54%), 서비스업(1.65%), 농수산업(2.46%)</li> </ul>
산업구조('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건설업: 14.4%, 서비스업: 49.09%, 농수산업: 32.86%</li> </ul>
노무여건('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6.3%</li> <li>•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5%</li> </ul>
최저임금('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롱쉬엔(Long Xuyen)시, 짜우독(Chau Doc)시: VND 3,920,000= US 170 달러 (2급지)</li> <li>• 탄짜우(Tan Chau)군, 짜우푸(Chau Phu)현, 짜우타잉(Chau Thanh)현, 토아이선(Thoai Son)현: VND 3,430,000= US 149 달러(3급지)</li> <li>• 푸탄(Phu Tan)현, 피톤(Tri Ton)현, 락비엔(Tinh Bien)현, 찌머이(Cho Moi)현, 안푸(An Phu)현: VND 3,070,000= US 134 달러(4급지)</li> </ul>
외국인투자 ('20.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장성 내 외국인투자는 총 38개 프로젝트, 2.72억 달러</li> <li>• (한국) 11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90.3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안장성에 투자한 국가중 1위</li> </ul>



□ 투자환경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성내 4,382km 도로가 있으며, 그 중:
  - 91번국도는 쾀터(Can Tho)시에서 시작하여 안장(An Giang)성을 통과하여 띠엔(Tinh Bien)현에서 캄보디아 국경과 만나는 도로이며 93km 임
  - N1국도는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선을 따라 롱안(Long An)성 득후에(Duc Hue)현에서 동탑(Dong Thap)성을 지나 안장성 짜우독(Chau Doc)시를 거쳐 끼엔장(Kien Giang)성까지 이어지는 도로임
  - 91C국도는 956지방도로를 개선한 도로이며, 짜우독(Chau Doc)타운에서 91국도와 연결 및 안푸(An Phu)현 롱빈(Long Binh)다리와 연결됨
  - 성내 도로는 총 480km이며 16차선이 있음
- (수로) 띠엔강(Song Tien, 안장성을 가로지르며 총 87km 길이) 및 하우강(Song Hau, 안장성을 가로지르며 총 100km 길이)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안장성, 메콩강 삼각주 두개의 지역과 연결하는 중요한 강임. 또한 성내에는 50~100톤 규모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2급, 3급 운하가 있음. 안장에는 현재 연간 1.65백만톤 이상의 적재능력이 있는 미터이(My Tho)항구와 연간 30만톤의 적재능력이 있는 빈롱(Binh Long 항구, 빈롱공단 안에 있음)등 2개의 항구가 있음.
- (항공) 안장성은 쾀터(Can Tho) 국제공항에서 서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음. 공항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약 60분이면 롱쑤옌(Long Xuyen)시내 중심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 유리함.



○ 관광

안장성에는 97개의 관광 숙박 시설(4성급 호텔 1개, 3성급 호텔 6개, 2성급 호텔 7개, 1성급 호텔 39개 등), 13개의 여행사(11개 국제여행사, 2개 국내 여행사), 3개의 수상운송업체, 15개의 관광지(삼산[Nui Sam]국립관광지, 감산[Nui Cam] 등)가 있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안장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약 650만명에 달하며, 그 중 해외관광객은 15,000명에 달하고, 관광수입은 US 174백만 달러로 추정됨.



삼산((Nui Sam) 관광지역



바꾸아쓰(Ba Chua Su) 묘

- 삼산(Nui Sam) 관광지역: 안장성 짜우독(Chau Doc)시 삼산마을에 위치하며, 바꾸아쓰(Ba Chua Su) 묘, 타이안(Tay An) 사원, 향사원(Chua Hang), 투아이 응옥 허우(Thoai Ngoc Hau) 능과 같은 유명한 유물들이 산기슭 주변에 분포되어 있음. 바꾸아쓰(Ba Chua Su) 묘는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매년 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음. 음력 4월에 개최되는 비아바(Via Ba)축제는 민족 문화 축제로 간주되며 2001년부터 국가 축제로 격상되었음. 삼산관광지역에 이르는 길에는 고급 시설과 프랑스식 건축물이 있는 빅토리아 관광 마을을 방문할 수 있음.
- 감산(Nui Cam) 관광지역: 누이옹감(Nui Ong Cam) 또는 티엔감선(Thien Cam Son)으로도 불림. 띠엔비엔(Tinh Bien)현 안하우(An Hao)마을에 속하며 해발고도는 705m임. 감산에서 보홍(Bo Hong)정상은 7개의 산들중 가장 높으며 메콩 삼각주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기도 함. 감산에 가면 관광객들은 탄롱(Thanh Long) 워터파크, 튀리엠(Thuy Liem) 호수, 사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두리안, 아보카도, 핑크 굴 등 감산의 계절 과일을 즐길수도 있음.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 개발 동력 (완공되어 사용 중)

- 빈호아(Binh Hoa) 공단: 132ha
- 빈롱(Binh Long) 공단: 30.57ha
- 수안또(Xuan To) 공단: 57.4ha



• 3개의 경제 국경 게이트 지역:

- 띠엔빈(Tinh Bien) 국경 게이트 지역(띠엔빈(Tinh Bien)현): 약 10,100 ha의 자연 면적이 있음, 프놈펜(캄보디아 수도)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음
- 빈스엉(Vinh Xuong) 국경 게이트 지역(탄짜우[Tan Chau] 타운): 약 12,487ha의 자연 면적이 있음, 프놈펜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음
- 카잉빈(Khanh Binh) 국경 게이트 지역(안푸(An Phu)현): 약 8,140ha의 자연 면적이 있음. 프놈펜에서 약 75km 떨어져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토지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제 46/2014/ND-CP 의결서(2014.05.15)에 따름
-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세부규칙 및 시행지침의 시행령 제 218/2013/ND-CP 의결서(2013.12.26)에 따름
- 수입세: 수입세 및 수출세법의 정부의 세부규칙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에 대한 제 134/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름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0년말까지 안장성내에 유효한 외국인 투자는 총 38개의 프로젝트에 걸쳐(그중 경제구역 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7개 프로젝트 포함), 총 2.72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 있으며, 이중 총 1.59억 달러가 투자집행되어 투자집행율은 58.4%임.

○ 한국계 투자

2020년말까지 한국기업의 유효한 투자는 총 11개 프로젝트에 걸쳐 90.33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 있으며, 안장성에 투자한 국가중 1위.

○ 안장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An Giang Samho Co., Ltd	신발 생산	한국	70,000,000
2	Vietnam Chingluh Shoes Co., Ltd	신발 생산	영국	45,000,000
3	Lu An Co., Ltd	섬유	중국	30,000,000
4	NV Apparel Co., Ltd	섬유	태국	25,000,000
5	Branch of MM Mega Market Co., Ltd	쇼핑몰	태국	17,811,000



6	JIC Vietnam One Member Co., Ltd	자재 생산	일본	15,000,000
7	JY Global Limited Company	동물 인형 및 의류 생산	홍콩	12,924,629
8	Victoria Hang Chau Hotel One member Co., Ltd	호텔 서비스	홍콩	8,800,000
9	Kovie Vina Co., Ltd	어분, 어유 생산	한국	8,000,000
10	Hoang Kim-CNC Co., Ltd (Sunway-CNC Co., Ltd)	위락단지 및 주거 지역	한국	7,842,105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면적 (ha)	주요정보
1	빈호아 (Binh Hoa)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짜우타잉(Chau Thanh)현에 속하고, 91번 국도와 941번 지방도로 로떼(Lo Te)교차로에 위치해 있음</li> <li>- 롱쉬엔(Long Xuyen)시에서 15km, 미투이(My Thoi) 항구에서 21km, 호치민시에서 197km 떨어져 있음</li> </ul> </li> <li>○ 인프라: 기술 인프라가 완성되었으며, 하루 5,000m<sup>3</sup> 규모 상수 공급 시설이 있음. 산업단지에서 하우강 수로로 연결되는 화물 집결지, 운송용 도로 그리고 500m 길이의 부도가 있음. 폐수 처리 시스템의 용량은 2,000m<sup>3</sup> 임</li> <li>○ 투자 유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화 및 의류 가공 및 생산, 동물 사료 생산, 플라스틱, 소비재, 농산물/수산물/축산물 가공, 식품, 야채, 기계, 장비 제조 산업</li> </ul> </li> </ul>
2	수안포 (Xuan To)	15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띠엔빈(Tinh Bien)현 띠엔빈(Tinh Bien)마을에 속해 있으며, 91번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음</li> <li>- 띠엔빈(Tinh Bien) 국제 국경에서 1km,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20km, 롱수이엔(Long Xuyen)시에서 75km, 미터이(My Thoi)항구에서 84km, 호치민시에서 252km 떨어져 있음</li> </ul> </li> <li>○ 인프라: 완성된 인프라의 면적은 57.4ha 이며, 교통, 전기, 수도 및 빗물 배수 시스템이 완성되어 현재 사용 중임</li> <li>○ 투자 유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류 및 운동화 가공 및 생산, 농산물, 식품 및 음료 가공, 포장 산업, 전자 조립</li> </ul> </li> </ul>





3	빈롱 (Binh Long)	30.57	<p>○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찌우푸(Chau Phu)현 빈롱(Binh Long)마을에 속해 있음</li> <li>- 롱쑤옌(Long Xuyen)시에서 33km, 미터이(My Thoi)항구에서 40km, 호치민시에서 215km 떨어져 있음</li> </ul> <p>○ 투자 유치 분야:</p> <p>농수산물 가공, 국내 소비 및 수출용 농수산물 재배와 가공을 위한 지원 산업, 의류, 신발류, 식품, 소비재 가공, 기계 제조 공장</p>
---	-------------------	-------	---

**□ 투자 유망분야**

-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 농수산물 가공
- 섬유, 패션

**□ 안장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안장성 투자무역촉진센터 (Website: atpic.angiang.gov.vn)	Mr. Tran Quang Thanh (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84 946 699 979</li> <li>• E-mail: tqthanh@angiang.gov.vn</li> </ul>
	Mr. Dang Hoa Thuan (투자촉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84 989 952 179</li> <li>• E-mail: thuanatip@gmail.com</li> </ul>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6.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6.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111	72,076.37	187	573	2,053.16
일본	4,716	63,059.01	86	1,656.84	2,442.46
싱가포르	2,735	62,271.12	106	4,736.94	5,636.14
대만	2,821	34,858.25	33	110.47	882.04
홍콩	1,988	26,690.39	55	856.37	1,025.26
버진아일랜드(영)	867	22,154.46	15	141.92	321.24
중국	3,224	19,768.27	93	678.13	1,262.09
말레이시아	657	12,995.31	9	8.8	81.21
태국	626	12,783.91	21	105.7	236.52
네덜란드	379	10,353.53	13	89.29	172.04
미국	1,100	9,697.98	28	300.64	343.6
전체 합계	28,224	346,708.60	804	9,549.06	15,271.0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1. 6.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6.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379	233,678.30	273	3,099.73	6,977.80
2	부동산경영	960	61,045.46	24	794.34	1,150.89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66	33,648.16	15	4,990.52	5,340.94
4	호텔, 외식서비스	896	12,549.64	9	33.66	92.68
5	건설	1,762	10,733.72	15	53.85	108.13
6	도소매, 유지보수	5,392	8,687.51	230	159.42	420.64
7	물류운수	890	5,692.96	22	323.08	368.83
8	채광	107	4,894.76	-	-	1.36
9	교육, 양성	600	4,423.21	17	8.3	20.66
10	정보통신	2,382	4,038.19	63	12.75	77.18
11	기술과학전문	3,610	3,845.10	111	53.47	476.01
12	농, 임, 수산	505	3,687.22	7	14.96	78.65
13	예술 오락	138	3,393.57	-	-	0.41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03	1	1.01	83.1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1.42
16	행정, 지원 서비스	500	978.5	17	3.96	13.54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	-	2.21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56.6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합계	33,787	397,886.66	804	9,549.06	15,271.0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6 (누계)
수 출	2,434.8	2,641.8	2,826.5	1,583.3
수 입	2,366.8	2,530.7	2,627.0	1,593.2
무역수지	68.0	111.1	199.5	-9.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6 (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077	51,378	51,183	25,053
전기전자제품/부품	29,320	35,925	44,576	23,869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49	18,303	27,193	17,097
섬유/직물제품	30,448	32,850	29,809	15,310
신발류	16,238	18,320	16,791	10,383
원목 및 목제품	8,908	10,647	12,371	8,205
수송수단 및 부품	7,964	8,505	9,090	5,458
철강제품	4,549	4,210	5,258	4,524
수산물	8,794	8,543	8,412	4,121
원사(Yarn)	4,025	4,176	3,736	2,642
기 타	67,611	71,332	74,235	41,673
합 계	243,483	264,189	282,654	158,33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6 (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197	51,353	63,971	33,562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27	36,748	37,251	22,9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5,865	14,615	16,645	9,019
의류(원단)	12,774	13,276	11,875	7,285
플라스틱 원료	9,066	8,991	8,397	6,035
각종 철강제품	9,890	9,507	8,066	5,786
기타 비금속	7,249	6,385	6,052	4,435
플라스틱 제품	5,893	6,538	7,274	3,929
화학물질	5,163	5,128	5,016	3,789
화학제품	5,030	5,419	5,741	3,516
기 타	89,833	95,110	92,412	59,059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159,32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6 (누계)
1	미국	41,608	47,526	61,347	77,077	45,576
2	중국	35,463	41,268	41,414	48,905	24,531
<b>3</b>	<b>한국</b>	<b>14,823</b>	<b>18,205</b>	<b>19,720</b>	<b>19,107</b>	<b>10,323</b>
4	일본	16,841	18,851	20,413	19,284	10,063
5	홍콩	7,583	7,955	7,156	10,437	5,674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3,885
7	독일	6,364	6,869	6,555	6,644	3,595
8	태국	4,786	5,494	5,272	4,917	3,031
9	인도	3,756	6,542	6,674	5,235	2,924
10	영국	5,424	5,776	5,758	4,955	2,880
	기타	77,364	77,921	82,999	79,094	45,853
	합계	214,019	243,483	264,189	282,654	158,33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6 (누계)
1	중국	58,229	65,438	75,452	84,187	52,921
<b>2</b>	<b>한국</b>	<b>46,734</b>	<b>47,497</b>	<b>46,935</b>	<b>46,895</b>	<b>25,370</b>
3	일본	16,592	19,011	19,526	20,341	10,681
4	대만	12,707	13,228	15,173	16,701	10,135
5	미국	9,203	12,753	14,365	13,713	7,627
6	태국	10,495	12,023	11,656	10,968	6,605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4,200
8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3,659
9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3,615
10	인도	3,940	4,147	4,538	4,435	3,426
	기타	40,521	46,238	47,975	48,826	31,088
	합계	211,103	236,687	253,070	262,700	159,32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6 (누계)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10(0.7)	25,847(22.2)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11,602(15.6)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32	14,245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6 (누계)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6,006(13.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4,603(39.5)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1,559(3.9)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1,150(57.3)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1,068(9.4)
계측제어분석기	1,058(145.1)	696(-34.2)	783(12.4)	669(-14.5)	614(67.2)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598(19.7)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563(6.8)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543(3.7)
자동차부품	385(-12.7)	474(23.3)	668(40.9)	673(0.8)	474(95.0)
기타	6,925	6,743	6,685	5,774	3,178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11(0.7)	25,847(22.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6 (누계)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2,534(-5.3)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1,484(10.1)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1,041(111.1)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628(10.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389(-31.0)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381(14.4)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362(41.0)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341(31.1)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280(29.3)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271(30.8)
기타	5,279	6,197	6,330	6,473	1,509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11,602(15.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0년(연간)	%	△5.4	△9.5	△5.6	△2.1	2.9	
	2021년 1Q	%	1.3	N/A	△0.5	△0.7	4.48	
	2021년 2Q	%	14.3*	N/A	N/A	N/A	6.61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107.5	N/A	109.8	147.1	3.4%
		2021년 5월	-	115.7	△74.2	114.5	N/A	11.6%
		2021년 6월	-	N/A	△154.3	N/A	N/A	6.8%
	구매관리지수 (PMI)	2020년(연간)	-	N/A	N/A	102.4	44.7	N/A
		2021년 5월	-	50.7	49.9	111.6	55.3	53.1
		2021년 6월	-	50.8	50.8	N/A	53.5	44.1
소비	소비동향지수	2020년(연간)	-	99.8	N/A	79.5	93.6	N/A
		2021년 5월	-	101.9	N/A	N/A	104.4	N/A
		2021년 6월	-	N/A	N/A	N/A	107.4	N/A
	소매판매	2020년(연간)	-	81.7	N/A	131.0	197.5	2.6%
		2021년 5월	-	84.8	2.1%	131.8	223.9	△1.0%
		2021년 6월	-	N/A	N/A	N/A	202.3	△6.6%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0.2	N/A	△1.2	104.9	3.2
		2021년 5월	%	2.4	4.5	4.4	106.5	2.9
		2021년 6월	%	N/A	4.1	N/A	106.5	2.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0년(연간)	%	△14.3	N/A	1.4	△5.0	△25
		2021년 5월	%	N/A	N/A	N/A	N/A	0.8(누계)
		2021년 6월	%	N/A	N/A	N/A	N/A	△2.6(누계)
고용	실업률	2020년(연간)	%	3.0	10.4	4.5	7.1	2.5
		2021년 1Q	%	2.8	8.7	4.7	6.3	2.4
		2021년 2Q	%	N/A	8.7	4.5	N/A	2.6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연간)	%	△3.2	△10.1	△1.4	△2.2	6.5
		2021년 5월	%	29.8	29.8	47.3	58.8	35.6
		2021년 6월	%	22.3	N/A	N/A	54.5	17.3
	수입증가율	2020년(연간)	%	△7.4	△23.3	△6.3	△16.9	3.6
		2021년 5월	%	32.2	47.7	50.3	68.7	56.4
		2021년 6월	%	28.3	N/A	N/A	60.1	33.5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특별판 2부 : Post 코로나 시대를 위한 新 통상정책







## 특별판 2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신 통상전략 'K-통상'

정부는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가 '자국 우선 (Deglobalization), 디지털 전환 (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 (Decoupling)' 등 이른바 3D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통상전략으로서 'K-통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

현재까지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과 시행하고 있는 필수 기업인의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무역협회 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필수 기업인의 해외출국 및 국내 입국 관련 사항(예로접수,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면서 발급지원, 전세기 운항협조)을 일괄 지원하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 통관 원활화, 무역 투자제한 조치 최소화 등 보장을 위한 G20, ASEAN+3, APEC 등 다차차원의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전방위 디지털 경제 협력강화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PA)' 체결을 본격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매뉴얼화하여 대상국의 수요와 발전 수준에 맞춰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보장,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 등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 의료 교육 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표준화 및 국제기준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와 비대면 기술 실증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3.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신남방 신북방 FTAs를 확대하고 FTA협상의 누적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 관행 챗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 중 EU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4대 유망신산업(의료 바이오, 디지털, 소재·부품·장비, 수소경제 미래차)을 중심으로 공동 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4. 新 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 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하여 각종 정책 및 업종별 국가별 수출동향 등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보조금 등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민관합동 아웃리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회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덤핑조사 외에 다수기업과 연관된 산업피해 조사도 병행하여 지원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 투자제한 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외투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등 기술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3D)



#### 정부의 신 통상전략 'K-통상'

<p><b>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 확대</li> <li>포스트 코로나 新 이슈 다자논의 선도</li> <li>對 개도국 K-FTA 추진 및 통상협력촉진 법적기반 마련</li> </ul>
<p><b>전방위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통상협력 파트너십 확대</li> <li>디지털 관련 국내제도 개선</li> <li>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li> </ul>
<p><b>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li> <li>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의 차별화된 통상협력 추진</li> </ul>
<p><b>新 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합동 新 보호무역 대응반 운영</li> <li>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li> <li>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li> </ul>



화면 클릭 시 참가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웨비나

## ☑ 행사개요

- 일시 : 2021년 8월 4일(수), 오전 8:00~10:00(베트남 시간)
- 장소 : Zoom 온라인 송출
- 주최 : KOTRA, VIETRADE
- 주요연사 : 베트남 정부, WHO 베트남 사무소, 베트남 지방 성정부 관계자 등
- 참가대상 : 베트남 진출(기진출) 희망 국내기업
-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전략, 코로나의 영향과 파급효과,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사례 등



## ☑ 프로그램

시간 (베트남 시간)	내용	연사
8:00 ~ 8:10	행사 소개	
8:10 ~ 8:20	개회사	VIETRADE 정장
8:20 ~ 8:30	환영사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8:30 ~ 8:50	코로나가 베트남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WHO 베트남 사무소장
8:50 ~ 9:10	베트남 코로나 상황, 정부의 예방과 통제 전략	베트남 보건부
9:10 ~ 9:25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 사례	베트남 성정부 (북부-빈푹성)
9:25 ~ 9:40	코로나 확산에 따른 호치민시의 외국인 투자자 지원정책	베트남 성정부 (남부-호치민시)
9:40 ~ 10:00	Q&A 및 Closing	사전 및 Live 접수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gpb8C44Lo86LVace6>



※ 문의처:

☐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하노이)

- 최동철 팀장 / [dcchoi@kotra.or.kr](mailto:dcchoi@kotra.or.kr) / +8493 4557363
- Ms Tran Thu Quynh / [thuquynh1124@kotra.or.kr](mailto:thuquynh1124@kotra.or.kr) / +8494 7595626
- Ms Nguyen Thi Nguyet Ha / [hanguyen@kotra.or.kr](mailto:hanguyen@kotra.or.kr) / +8498 1103280

☐ KOTRA 본사 신남방 중동팀(서울)

- 한송옥 대리 / [songok.han@kotra.or.kr](mailto:songok.han@kotra.or.kr) / 02 3460 7666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베트남) 주관  
『2021 아세안 스마트시티 O2O 전략수출컨소시엄』참여 안내

□ 수출컨소시엄 개요

- 사업 명 : 2021 아세안 스마트시티 O2O 전략수출컨소시엄
- 상담기간 : 2021.10.6(수) ~ 10.7(목)(2일) \*참정 (코로나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아세안사무소)
- 참가품목 :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니스 및 기술협력(공동 R&D) 등 희망하는 중소기업 약 25여개사 내외

모집분야	관련 제품	비고
도시관리	-스마트홈(IoT 기반 솔루션, 가전) 스마트빌딩 관련 -GIS 기반 공간 데이터, 지능형 CCTV	우선 모집분야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빌딩에너지, 에너지분배(관리), ESS -조명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녹색건축	
안전/복지	-방법, 재해. 재난 모니터링, 원격 경고, 범죄예방 -교육(평가)·인식개선, 스마트관광, 원격 진단(의료)	
에코(환경)	-수자원(상하수도 네트워크, 급배수 관리), 대기오염 -폐기물(수집, 재활용), 환경모니터링, 해수담수화	
모빌리티(교통)	-신호체계, 교통관리, 주차장 관리, 드론 택배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 자율주행	
거버넌스/행정	-시민소통채널, 전자정부, 빅데이터 관리(통합관계) -시물레이션(증강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SmartCity 분야 내 중소기업 단독 추진가능(진출. 협력) 분야 우선 모집





○ 주요내용 :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제품 체험, 스마트시티 세미나 개최 등

주요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온라인 비즈매칭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미팅 진행 *기업별 MD사전 교육 -샘플, 홍보자료, 통역원 섭외 등	현장용 제품 샘플, 홍보물 준비 바이어 명단, 기술협력 희망 등
체험존 운영(홍보관)	-시연이 가능한 제품·기술 분야의 경우, 효과 과적인 제품 홍보를 위해 체험 홍보관 설치 *영상(제작) 노출	현장 시연 가능 장비(제품) 사전 발송 및 현장 안내요원 기술 교육
스마트시티 세미나	-현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황 및 사례 소 개 (사전/현장컨퍼런스)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	(사전)참여기업 대상 세미나 (현장)기관 및 바이어 대상, 추진현황 및 사례 발표 등은 현지 관련 기관 협조

### □ 참여기업 지원사항

- 홍보콘텐츠 제작(베트남어 자막, 현지어 제품카탈로그 번역 등)
- 사전 설명회,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비용, 온라인 화상 상담회
- 통역, 현장상담 전문인력(체험) 및 샘플운송비(사전/사후) 지원 등

### □ 기업 모집

- 모집기한 : ~2021.8.2(월) \*필요시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①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신청  
②신청양식(엑셀)+추가자료(안내자료 참고) 등 이메일 제출

① 온라인 참가신청 :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회원가입 후 - 사업신청 -> 시장개척단 -> '2021 아세안 스마트시티 O2O 전략수출컨소시엄' -> 참가신청

② 첨부 <참고> 체크리스트 내 해당(제출) 여부 O,X 표기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회사 및 제품소개서 각 1부
- (필수) 참가동의서(별지10호), 기업정보활용 동의서(별지11호), 고용영향평가표(별지12호) 1부
- (해당 시) 수출실적증명서, 해외특허, 산업재산권, 국내 및 해외 규격(인증) 등 각 1부
- (해당 시) 가점사항 증빙 사본(별지 13호 참고) 각 1부

\* ①②신청완료 확인 시 확인 이메일 발송 예정

### □ 접수 및 문의처

- 국제통상부 김예민 과장 02-2124-3293 / yaemin@kbiz.or.kr
- 아세안사무소(베트남) +84-243-796-0024 / vietnam@kbiz.or.kr



##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의 산실, 베트남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됩니다.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단 착수식 참석 및 베트남 인프라 협력활동 추진



※7월 7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 참석 하에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착수식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7일(수) 현지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43만평) 착수식을 통해 산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사업은 '17년부터 양국 정부, 기업간 협력이 개시된 이후, 지난 '19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및 '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경제협력 사업으로,

- 이번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총리실의 투자정책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 토지분양과 산단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협력단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 대표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에 참석하는 등 베트남에서의 해외건설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 흥옌성 클린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측 컨소시엄과 베트남 유수의 부동산개발기업 에코파크사의 자회사인 TDH 에코랜드사가 공동 투자하여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리트엔켓에 한국기업 전용산단을 조성, 분양하는 사업이다.



【 흥옌성 클린산단 개요 】

- (사업내용) 하노이 남동측 30km 흥옌성 리트엥켓 지역에 143ha(43만평) 산업단지 조성
- (사업구조) 한국측 컨소시엄(75%) · TDH ECOLAND(25%) 출자법인 설립
  - \* 한국측 컨소시엄 : LH(35%),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5%)
- (사업비/기간) 총 910억원/’21 ~ ’71(50년 임대 후 청산) \* 산단 준공 예상시점 : ’23

○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내 우수한 위치에 기반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산업 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베트남 진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산업·물류·주거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기업 투자여건이 우수

- 베트남 역시 경협산단 조성을 통해 한국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베트남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약 60여개 한국기업 입주, 4억 달러 직접 투자, 약 1만 여명의 고용 창출 예상

□ 이번 착수식에는 한국측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장충모 LH 부사장 등이, 베트남측은 쩌 꾸억 반(Tran Quoc Van) 흥옌성장, 레 타잉 궤(Le Thanh Quan) 기획투자부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 특히, 양국 주요 인사는 축사를 통해 흥옌성 경협산단 추진에 대해 그동안 양국 정부 간 다방면의 협력 노력이 구체화된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년을 맞아 앞으로도 흥옌성 산단조성과 같은 협력사례가 늘어나 양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 유지되고, 양국 경제발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 참석을 계기로 7월 5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 베트남은 지난 '66년 우리 건설기업이 첫 진출한 이후 아시아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2위(1위 싱가포르), 세계 전체 5위를 차지하는 해외건설 주요시장이며,

-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 견인을 위해 공항·항공·철도·항만·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에 있어 우리 인프라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 윤 차관은 우리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 룡탄 신공항 1단계 건설사업(약 47억불) 및 호치민 지하철 2호선(건설비 약 21.5억불) 사업관리 등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도 참여하였다.





## [참고]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단 사업개요

### □ 추진배경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강화 및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 하고 한반도 경제영토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기업(중소·중견)의 베트남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 사업개요



- 위치 : 하노이 남동측 30km 흥옌성 리트엥켓
- 면 적 : 1,431천㎡(431천평)
- 사업비 : 약 910억원
- 사업주체 : LH(35%), KIND(25%), KBI건설(10%), (참여지분) : 신한은행(5%), Ecoland(25%)로컬
- 사업내용 : 한국기업 진출 위한 산업단지 조성



###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토지이용계획(안)





□ 추진경위

- '17.04 : 흥옌성 산업도시 개발 협력 MOU 체결 (LH↔흥옌성↔에코파크)  
\* (체결목적) 흥옌성 산업도시 개발 협력(전체 약 900만평)
- '18.02 : 우선사업지구(흥옌성 산단) 선정 MOA 체결 (LH↔TDH Ecoland)
- '19.08 : 사업 예비시행약정서(PIA) 체결 (LH↔TDH Ecoland)
- '20.06 : 베트남 현지 개발계획(D/P) 승인
- '21.01 : 공동시행 5개社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경쟁력

- (베트남 성장 잠재력) 인구 약 1억명에 가까운 내수시장, 30여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고도성장
- (우수한 입지) 하노이 도심으로부터 약 30km 이격, 1시간 이내 노이바이 국제공항(50km)과 하이퐁 항만(75km)으로 접근 가능
- (풍부한 노동력) 인구의 약 70%가 생산가능 인구로 젊은 노동력 풍부, 동일권역 아세안 국가들 대비 저렴한 월 최저임금
- (원스탑 서비스) 행정·금융·세무 등에 대하여 입주 초기단계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공신력 있는 개발주체)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LH(컨소시엄)와 전문성 있는 현지 로컬사가 설립한 합작투자회사가 사업 시행
- (세제 혜택)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업종에 따라 최대 15년간 법인세 혜택

□ 향후계획

- '21년 하반기 : 토지보상 및 입주확약서 제출기업 등에 토지공급 추진, 실시설계를 통한 조성공사 착공  
\* 입주확약서 제출기업 우선 공급 후 잔여필지는 일반분양

□ 관련 문의처

- 담당자 : LH 하노이사무소 김석동 소장 : +84)24-3200-3306  
LH 하노이사무소 정국식 차장 : +84)24-3200-3306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